



韓國金石文中所現王羲之書考(以普覺國師碑銘爲重點)

- 韓國 金石文에 나타난 王羲之의 一考察 : 普覺國師碑銘을 中心으로

저자
(Authors) 金榮淑

출처
(Source) [모산학보 8](#), 1996.6, 599-635 (37 pages)

발행처
(Publisher) [동아인문학회](#)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0714344>

APA Style 金榮淑 (1996). 韓國金石文中所現王羲之書考(以普覺國師碑銘爲重點). 모산학보, 8, 599-635.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03/23 15:22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韓國金石文中所現王羲之書考(以普覺國師碑銘爲重點)

韓國 金石文에 나타난 王羲之의 一考察

普覺國師碑銘을 中心으로

金榮淑

I 序論

書聖 王羲之(東晉)는 中國은 勿論 韓國에서 三尺童子도 알 정도로 有名하다. 그는 各體를 高루 잘 썼다고 하나 다만 楷行草書가 現존할 뿐이다. 王羲之가 많은 글씨를 썼고, 그의 글씨가 有名하였음은 書目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唐 褚遂良이 編纂한 晉右軍王羲之書目¹⁾의 正書五卷(共四〇帖), 行草書五十八卷(共二六〇帖)과 《右軍書記》.四四三種, 《大令書語》一八種, 《十七帖》二九種, 《淳化閣帖》一五五種, 《降帖》一四種, 《汝帖》一〇種, 《寶晉齋帖》五二種 등 대단히 많다. 이런 글씨는 後代로 오면서 많이 湮滅되자 集字碑를 세워 오래 전할 수 있게 하였으니 集字聖教序 興福寺斷碑와

1 金振永編著 《書藝術叢書》 四, <書藝術黎明 東晉> p27에 나타난 <晉右軍王羲之書目><右軍書記><大令書語><十七帖><淳化閣帖>에 王右軍書目이 잘 나타나 있다.

같은 것이 그것이다. 이런 遺風은 韓國에서도 이루어져 慶尙北道 慶州의 蓋藏寺碑, 江原道 襄陽의 沙林寺弘覺國師碑, 慶北 金泉의 直指寺大藏殿碑, 慶北 軍威의 麟角寺 普覺國師碑銘 등이 王羲之書를 集字하여 새긴 것이다.

그러나 普覺國師碑銘을 제외한 나머지 碑石은 일찌기 破損되거나 잘려진 斷碑의 斷石이 전할 뿐이었다. 普覺國師碑銘도 碑石 自體는 現存하나 글씨가 크게 摩滅되어 判讀이 不可能하다. 따라서 韓國에는 王羲之書를 集字한 完全한 碑石은 없다고 하겠다. 다행이 一〇餘年前 普覺國師碑銘의 拓本完好本이 發見되어 普覺國師碑銘의 全貌를 알 수 있게 되었다. 이 普覺國師碑銘의 拓本은 全文을 生生하게 볼 수 있는 것으로 韓國金石文 가운데서 唯一한 王羲之書體 集字拓本으로 書藝史的 價値가 높다. 이러한 普覺國師碑銘은 中國에 있는 王羲之書體 集字碑와 어떤 關聯이 있는지? 또는 普覺國師碑銘만이 갖는 特性은 어떠한 것인지 書法上的 特性은 무엇인지를 研究할 必要性을 지닌다.

이에 따라 本稿는 王書로 集字된 普覺國師碑銘과 同類인 集字聖敎序, 興福寺斷碑를 比較 檢討하여, 共通點과 差異點을 究明하고 普覺國師碑銘의 書法上 特徵을 考察코자 한다. 이를 통하여 書藝術的 價値를 밝히고자 한다.

II 韓中金石文에 나타난 集王書

前記한 褚遂良의 王羲之書目에서 알 수 있듯이 唐代까지도 王羲之書體는 法帖으로 많이 전했었다. 眞本도 있었을 것이고 摹本도 많이 傳했을 것이다. 書를 研究하는 사람들은 紙本의 肉筆本을 많이 選好하게 되었지만, 長久한 歲月 秘藏하기가 어려워 石刻의 拓本을 重히 여기게 되었다. 石刻에 依한 拓本은 肉筆의 紙本에서 느낄 수 있는 飛白, 濃淡, 潤渴 등의 美는 느끼기 어려우나 同一 作品을 여러 편 얻을 수 있는 點이 있다. 王羲之 楷書의 第一이라는 樂毅論을 王羲之가 돌에 직접 썼다는 것만으로도 石刻의 重要性을 알 수 있다. 이렇게 王羲之 當代에는 王羲之 親筆 石刻이 이루어질 수 있었지만 王羲之 死後에는 할 수 없이 王羲之書를 集字해서 돌에 새길 수 밖에 없었다.

韓國에서도 王書를 集字하여 刻하는 것을 큰 名譽로 認識한 듯하다. 이 作業은 시간이 많이 들고 書品에 대해 該博한 知識과 眼目이 있어야 하며, 多數의 王書帖을 保有하고 있어야 하기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어렵고 힘든 作業을 沙門이 맡아서 했다는 데서, 集字者들의 書藝에 대한 知的 水準과 스승에 대한 尊敬心을 알 수 있다. 王書를 集字한 韓國의 碑는 다음과 같다²⁾

新羅蓋藏寺碑		新羅哀莊王	二年(八〇一)
沙林寺弘覺國師碑	僧 靈徹集	新羅憲康王	一二年(八八六)
直指寺大藏殿碑	僧 坦然集	高麗明宗	一五年(一一八四)
麟角寺普覺國師碑	僧 竹虛集	高麗忠烈王	二一年(一二九四)

이 碑들의 原形은 大部分 破壞 毀損되었으나, 普覺國師碑 銘原形(拓本)은 現存하고 있다. 中國의 集王書碑로서, 楊賓은 《宣和書譜》에 十八家가 있다고 하나 碑目은 밝히지 않았다. 馮登府의 《金石綜例》, 葉昌熾의 《語石》들을 참조하면 다음과 같다.

〈唐代〉

◎集字聖教序	僧 懷仁集	咸亨三年(六七二)
建福寺三門頌成碑	吳光璧集	開元五年(七一七)
懷素律師碑	僧 行敦集	開元六年(七一八)
◎興福寺斷碑	僧 大雅集	開元九年(七二一)
梁恩楚碑	衛秀集	開元十年(七二二)
◎太上靈寶清淨智慧觀身經碑	田名德集	一石大歷六年(七七一)
◎永仙觀碑	蕭森集	
周孝侯碑		元和六年(八一—)
六譯金剛經	楊承和集	

2 朝鮮總督府編《朝鮮金石總覽》上下(1919), 劉燕庭著《海東金石苑》上下(亞細亞文化社 1981), 葛城末治著《朝鮮金石考》(1935年刊), 李侯著《大東金石書》(1932年刊), 李蘭暎編《韓國金石追補》(1975年刊) 등의 書籍을 參考해 보면 三書を 集字한 韓國의 碑는 四種뿐이다.

六譯金剛經

唐 元序集 大和六年(八三二)

<宋代>

開陽普濟禪院碑

大中祥符三年(一〇一〇)

忻州建東嶽廟碑

大中祥符九年(一〇一六)

◎解州鹽池新堰箴

跌 跌集 天聖十年(一〇三二)

◎絳州重修夫子廟記

天聖十年(一〇三二)

玉兔寺淨居詩刻

僧 靜萬集 明道二年(一〇三三)

牡丹詩

集右軍四十七字殘碑

集蘭亭字本

集聖教序蘭亭南宋本

攝山棲霞寺碑

僧 懷則集

<元代>

倪處士墓表

張翥集

이 가운데서 ◎표 한 것은 原石이 있는 것이나, 字形과 文章이 完全한 것은 集字聖教序이며, 興福寺斷碑가 그 다음으로 字形이 完全하지만 斷碑이기에 文章이 連結되지 않는다. 따라서 韓國의 普覺國師碑銘(拓本)은 中國의 集字聖教序와 함께 王羲之 集字碑의 雙璧을 이룬다고 하겠다.

Ⅲ 普覺國師 一然과 碑銘의 內容

普覺國師 一然(一一〇六--一二八九)은 高麗末 高僧으로 姓은 金氏, 初名은 見明, 字은 晦然, 號는 陸庵이다. 慶尙北道 慶山郡 出生으로 金彦鼎의 아들이다. 一一一九年 雪嶽山 陳田寺로 出家하여 高僧 大雄의 弟子가 되어 具足戒를 받은 뒤 여러 곳의 禪門을 訪問하여 修行하였다. 一二二七年 겨울 選佛場에 나아가 上上科에 올랐으며 琵琶山 寶幢庵으로 옮겨 參禪에 沒頭하였다. 一二三六年 蒙古 侵入때는 五字呪文을 暗誦했고 "生界不滅 佛界不增"이란 句節을 探究하다가 깨달음을 얻었다. 뒤에 禪師에 올랐으며 一二七七年 忠烈王의 命에 따라 雲門寺에 居處하여 禪風을 크게 일으켰다. 一二八四年부터 麟角寺에 住在하였다.

一二八九年 六月에 病이 들어, 七月七日 王에게 올릴 글을 쓰고 八日 禪床에 앉아 弟子들과 禪問答을 나눈 뒤 房으로 돌아가 손으로 金剛印을 맺고 入寂하였다. 諡號는 普覺이고 塔號는 靜照이다. 著書로는 話錄 二卷, 偈頌雜著 三卷, 重編曹洞五位 二卷, 祖圖 二卷, 大藏須知錄 三卷, 諸乘法數 七卷, 祖庭事苑 三〇卷, 禪門拈頌 三〇卷, 三國遺事 五卷 등 一〇〇餘卷이 世上에 傳한다.³⁾ 碑銘은 總 三七行 行當 六七字

總字數 二二八八字로서 一然의 家系 및 生涯⁴⁾를 詳細하게 記述한 序文과 銘으로 區分되어 있다.

碑銘의 內容을 보면 碑銘 一般의 形式을 그대로 지니고 있다. 碑銘의 名稱이 《高麗國華山曹溪宗麟角寺迦智山下普覺國尊碑銘》이라 기록되어 있어 國名, 縣名, 宗派名, 寺刹名, 山名, 法諡를 쉽게 알 수 있다. 이러한 碑銘의 名稱은 他人의 高僧 碑銘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일반적인 名稱이다. 이를 略稱하여 《普覺國師碑銘》이라 하였다. 韓國精神文化研究院本 拓本에는 拓本 第一葉에 顏眞卿體 大字楷書로 普覺國師碑銘이라 되어 있다. 이것은 본문 第一行의 題目을 略稱한 것이다. 碑銘 다음에 撰者 閔漬의 職位와, 朝廷의 命에 따라 勅撰했다는 것이 기록되었는데 一般의인 碑銘 撰者表記와 다른 바가 없다. 그 다음 碑銘의 實質的인 序頭가 이어지는데, 사물의 本同末異와 衆生의 迷悟爲別에 대한 一般論을 展開한 후 一然의 家系와 出生談을 記述하였다. 특히 胎夢의 神異性이 표현된 것은 英雄들의 出生談과 一致하는

-
- 3 《三國遺事》以外的 著書는 佛家書이기에 一般 學者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의 碑銘에 나타난 著書가 모두 現存하는지의 與否를 明確히 알 수 없는 實情이다.
- 4 一然의 生涯와 佛法修行, 法統, 學說에 대해서는 蔡尙植教授의 <普覺國尊一然에 대한 研究> 《韓國史研究》26輯(1979年)에 仔細히 考察되어 있다.

面이 많다. 그 다음은 本論에 該當되는 부분인데 一然의 成長過程에서의 聰明이 絶倫함과, 剃度受具過程, 修鍊, 得道, 交遊, 說法의 履歷을 記述하였다. 그 다음은 一然 死後에, 一然에 對한 評說 著述에 대한 내용이 記錄되어 있고 結論에 該當되는 銘과 年代 門人 虛竹가 王羲之書體를 集字했다는 사실, 門人 淸玢이 立石했음을 밝힌 내용이다. 立石者 淸玢은 淸珍으로 誤認되어 왔다. 原拓 또는 古拓本이 發見되기 前까지 毀損된 拓本에 의해 淸珍으로 읽혀졌다⁵⁾. 韓國精神文化研究院本은 분명 淸玢으로 되어 있다.

文章의 形式은 다른 碑銘과 類似하다. 表現上으로 보면 序文은 簡潔하면서도 實質的인 求事成文했으며 銘은 四言 五十六句 轉韻形으로, 事實을 含蓄的으로 나타내어 雄渾의 美를 보여준다.

普覺國師碑는 現在 慶尙北道 軍威郡 古老面 華水洞 麟角寺內에 保存되어 있다. 壬辰倭亂中 日人들이 王羲之書임을 알고 다투어 拓本을 하느라 크게 毀損시켰으며 王羲之書를 求得코자 한 好書家들이 많은 拓本을 하여 害를 입었고, 王書의 破片을 갈아 마시면 科擧에 及第한다는 俗說로 인해 해

5 李能和《朝鮮佛教通史》下 p364 (新文館 1918)와 蔡尙植〈普覺國尊一然에 대한 研究〉《韓國史研究》26輯(韓國史研究會 1984)에 淸珍으로 되어 있다. 玉偏에 分字를 草書로 해서 珍으로 誤讀하기 쉽다.

를 입어 切斷되고 大多數 破滅되어 現在에는 數十字만 判讀이 可能的 狀態이다.⁶⁾

IV 普覺國師碑銘의 對比的 考察

(一) 普覺國師碑銘拓本 各本の 對比

普覺國師碑銘은 碑의 內容보다 王羲之書를 集字했다는 點에서 王書를 學習하려는 多人의 慾求에 依해서 拓本을 많이 한 拓本碑로 유명했다. 따라서 拓本の 數는 多種일 것으로 推測된다. 이에 대하여 黃壽永 博士는 五〇〇字 以上 完全한 本만 紹介하였으니 嶺南大東濱文庫本, 黃壽永本, 朴永淳本, 서울大奎章閣本, 精神文化研究院本 등이다. 이 中에서 韓國精神文化研究院이 尹昌錫氏로부터 買入한 것이 가장 古本이며 字劃이 刻明한 完好本이라 紹介한 바 있다. 그 후 大邱鄭震英氏 所藏本이 새로이 發見되어 本稿에서 添加 紹介한다. 鄭震英本은 가장 完璧하다고 인정되어 온 韓國精神文化研究院本(以下精文研本이라 略稱)과 相似하나 字數面에서 三葉(題額一葉包含)이 缺한 古拓本이다. 鄭震英本은 精文研本과 같이 界線이 있다. 碑文을 拓本하여 裁斷한 후二二 ×三二cm

6 現在는 碑閣을 建立하여 碑閣內에 保存하고 있기에 保存狀態는 良好하나 既破滅이 甚하여 碑閣間架로 보면 判讀이 거의 不可能하다.

되도록 前後 兩面 裱接하여 再構한 것이다. 編次를 잘못하여 文章이 連結되지 않는다. 잘 보이지 않는 字는 再拓하여 오려 붙인 흔적이 있다. 精文研本과 鄭震英本의 가장 큰 差異는 같은 碑를 拓本하여 다르게 編次한 것이다. 精文研本은 原碑의 크기 대로 拓本紙를 附著한 後 拓本을 해서 法帖을 製作키 위해 行別로 切斷하여 二二 × 三二cm 되도록 每行을 連結 裱接한 것이고, 鄭震英本은 原碑의 크기 대로 拓本紙를 附著한 後 拓本을 해서 二二 × 三二cm 크기로 切斷해서 裱接한 것이다. 따라서 鄭震本은 同葉內 行은 文章이 成立되나 行의 左右 連結이 되지 않는다. 每葉을 넘겨가며 書體만 工夫할 뿐 碑의 內容은 크게 생각하지 않은 製冊者의 意圖를 알 수 있다. 原冊이 오래되어 摩滅된 부분은 文章과 관계 없이 다른 부분을 附著한 곳도 있다. 精文研本은 文章이 上下 左右로 連結이 잘 되는 반면 每行間을 切斷 再構成했기에 原碑行間의 거리와 差異가 날 수밖에 없고 鄭震英本은 左右의 文脈은 不通하나 行間의 거리는 原碑에 가깝다. 精文研本보다 字劃이 鮮명한 部分이 많아 現存 最古本일 가능성도 높다. 다만 拓本の 保管狀態가 不良하여 毀損된 部分이 많다. 黃壽永 博士가 調査한 各本 對比表⁷⁾에 이를 添加하여 提示하

7 黃壽永 <高麗麟角寺普覺國師碑銘> 附錄 一, 麟角碑帖各本對比(韓國精神文化研究院刊)《高麗國華山曹溪宗麟角寺迦智山下普覺國師碑銘》(1981)을

면 다음과 같다.

所藏本名稱	規格(幅×長)	葉數	行數	每行字數	總字數	備 考
精文研本	22×32(cm)	23	8	14	2288	碑銘全文(題額包含)
서울대奎章閣本	13.5×24	22	5	10	1014	주요陰記
嶺南大東濱文庫本	11×22	19	4	9	655	碑文陰記(序跋)
黃壽永本	20×30	10	8	12-13	966	碑文陰記各半數
朴永淳本	13×24	20	5	11	994	碑文
大東金石書	16×19	3	6	12	192	碑文二枚陰記一枚
鄭震英本	22×32	20	8	14	2058	題額 및 二葉缺

이 외에도 朴永淳氏가 所藏하고 있는 碑陰記拓本도 完好本으로 一然碑研究의 補助資料가 된다. 書風이 王羲之와 恰似하나 字劃의 摩滅이 많아 魯鈍한 느낌을 준다. 碑陰記에 대해서는 別途의 論文에서 다루기로 하고 本稿에서는 省略한다.

(二)集字聖教序와의 對比

<集字聖教序>는 唐太宗이 撰하고 弘福寺의 沙門 懷仁이 王書를 集字한 것으로 원래 序文만을 指稱하지만 當時 皇太子였던 高宗의 《述三藏記》와 玄奘法師의 新譯에 依한 《般若波羅密多心經》이 併刻되어 있어, 이 모두를 <集字聖教序>에 包含시키기도 한다.(集字聖教序는 以下 聖教序로 略

參考함.

稱)

聖教序도 古拓本을 底本으로 해서 普覺國師碑銘과 對比하여야겠으나 中國에서 刊行된 古拓本을 求得하지 못하여 不得已 韓國에서 中國 法帖을 影印한 影印本을 底本으로 삼았다⁸⁾. 이 影印本은 原拓本을 數次 潤色한 것일 可能性도 排除할 수 없어, 聖教序原本과 상당한 差異가 發生할 수도 있다.

普覺國師碑銘과 聖教序를 比較해서 論評한 것으로는 龍門 居寺 尹光周의 序文⁹⁾이 많은 참고가 된다.

世稱 麟角碑 王右軍眞蹟 麟角 新羅寺也 右軍書 最稱三藏帖 而麟角獨傳其眞 蓋新羅 於右軍 其代近 得眞品 移於碑 故有名於世 余癖於筆 求之勤 未得置諸心 每耿耿請邑嶺者 周歲乃得一覽 宛然右軍之妙法 近所稱三藏帖 亦盡下風也 噫 壬辰

8 集字聖教序의 底本은 仁田社編著 《王羲之集字聖教序》(仁田社刊 1975)이다.

9 이 序文은 東濱 金庠基博士가 秘藏하던 古搨本(現在嶺南大所藏)의 것이다. 東濱은 이 古搨本에 다음과 같은 跋文을 남겼다.

麟角寺碑 亦被壬辰倭禍 仆倒於地 碑面剝落 存字不過幾十分之一 而片片剝缺 不可復尋其眞也 此本似係壬亂前搨者 誠是稀世之珍寶也 月精寺所藏寫本與此本亦有小異處例如稽首拜手 再拜而言白句 不載於月精寺本者也 第俟他日更求完好本 詳加校勘爲可而該碑搨本甚罕 可恨耳 己亥仲秋日 金庠基記

東濱이 曩世前에 韓國精神文化研究院所藏完好本을 一覽했으면 많은 論文을 發表했을 것이다. 完好本에는 東濱이 例示한 內容은 없다.

之亂 烏夷見此碑 曰不意右軍眞蹟復睹于此 爭印之 時冬火而印
仆之地 其後剝落 略有字片 片亦剝缺 無眞面 嗟乎 禍於倭 何
其酷也 然其言曰 右軍眞蹟 抑亦知妙法者乎 此獨傳其眞者歟

崇禎紀後辛巳歲

龍門居士 書于澹然堂中 並序

尹光周는 글씨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王書工夫에 많은 努力을 하였던 점으로 보아, 書藝, 書法에도 高次元의 識見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가 三藏帖(聖敎序)도 普覺國師碑銘보다 下風이 된다고 한 것은 重要的 評論이다. 尹光周가 본 三藏帖과 普覺國師碑銘이 어떤 本이었는가에 따라 그의 評論이 달라질 수 있다.

筆者는 八七三字의 聖敎序와 六〇九字의 述三藏聖記와 三八〇字의 般若波羅密多心經 等 都合 一八六二字를 精文研本 普覺國師碑銘二二八八字와 對比 考察하였다. 于先 字數의 對比, 同字 異字의 對比, 筆劃의 對比 等を 通해서 相關性和 無關性, 共通性和 差異點을 重點的으로 考察하였다. 그 結果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普覺國師碑銘의 書體는 聖敎序와 相似하나 同一한 文字 同一한 書法字가 많다. 聖敎序와 같이 筆의 抑揚의 機微가 奧妙하며 同一文字라도 可及的 다른 貌樣의 文字를 集字하여 變化와 多樣性을 追求하였다. 聖敎序와 同一한 文字라도 肉

筆이 아닌 拓本을 集字한 것이 많아 聖教序보다 點劃이 多少 微弱한 느낌이 있다. 이 점은 集字者가 王書를 잘못 選擇한 것이 아니라 刻手가 字體의 原形과 같게 刻하지 못한 것이라 하겠다. 전반적으로 聖教序 보다 약한 부분이 많고 銳利한 劃에서 多少 魯鈍한 느낌을 가지게 하는 것 등이 이를 뒷바침하게 한다.

聖教序에 不存이나 普覺國師碑銘에 存在하는 文字는 一〇六〇 餘字이다. 集字者 竹虛는 普覺國師碑銘을 集字함에 聖教序書體를 주로 사용하였다. 聖教序에 없는 文字가 많다는 것은 중요하다. 수많은 文字를 두루 列擧하지는 않지만, 多様な 形態의 書法을 研究할 수 있고 學書者는 聖教序와 함께 普覺國師碑銘을 補充法帖으로 使用함이 충분하다. 聖教序에 없는 文字가 普覺國師碑銘에 많다는 것은 竹虛가 聖教序 以外 많은 王羲之書帖을 많이 지니고 있었으며 고려시대에도 王羲之書가 많이 普及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聖教序와 普覺國師碑銘의 共通的인 書法¹⁰⁾을 具體的으로 考察해 보기로 한다.

點法의 帶鉤右點 卽 ‘大’의 第三劃은 露鋒으로 觸紙하여 右向 按筆로 運行後 筆을 轉左向하여 撇어내어 [ㄴ]와 같게

10 王右軍의 共通的인 書法은 所謂 三碑帖뿐만 아니라 蘭亭序등 臨摹本에도 適用된다.

했고, 帶下點 卽 ‘寒’의 마지막 二劃도 露鋒으로 轉筆하되 아래로 꼬부려 行筆하다가 약간 머물어 筆을 바로 돌려 [ㄱ]와 같게 하였다. 帶右點 卽 ‘以’의 처음 三劃은 草書劃으로서 露鋒垂直筆로 눌러내려 提筆하여 再次 눌러내려 치켜 올리되 連續動作으로 輕快하게 行筆되어 [ㄴ]처럼 되게 했고, 合二點 卽 ‘六’의 草書 마지막 二劃은 위로부터 이어받아 露鋒으로 按筆하되 右向出鋒하며 終劃은 左로부터 이어받은 露鋒으로 이어받은 露鋒으로 按筆하되 左向하여 빼쳐서 [ㄷ]와 같게 했다. 大, 寒, 以, 六字는 相互 거의 같은 字도 있고 類似한 字도 있다. 同一한 字는 集字聖教序의 文字를 集字했다고 볼 수 있으며, 類似한 字는 餘他の 作品에서 集字한 것으로 볼 수 있다.

橫法의 下鉤橫 則 ‘五’字의 마지막 劃은 붓을 간추려 落筆하되 뾰족한 虛尖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 右向運行한 後 頓筆로 鋒를 꺾어내어 [ㄹ]처럼 되게 하였고, 上挑橫 卽 ‘古’字의 第一劃은 露鋒落筆로 提筆하여 右上으로 運行하되 左上을 向하여 힘있게 出鋒하여 [ㄴ]처럼 되게 하였다. ‘五’字의 終劃은 他人들의 書法에도 相似하게 나타나지만 ‘古’字의 初劃은 王書의 特徵이라 하겠다.

豎法의 懸針書 卽 ‘譯’字의 終劃과 ‘年’字의 終劃은 鋒을 감싸서 上向하여 붓을 굴러서 아래로 運行하되 針처럼 끌어

내려 뺨의 끝을 自然스럽게 들어올려 뾰족하면서도 둥글게 하였다.

捺法の 回鋒捺 卽 ‘天’字의 第三劃과 같은 것은 微微한 褒鋒으로 右下로 向하여 굽게 運行하되 曲線의 起伏을 지닌 것으로 王羲之 行書의 特徵이자 聖敎序와 普覺國師碑銘의 共通點이다. 天字는 같거나 相似한 것이 大部分이다. 특히 圓曲捺 卽 ‘通’字의 終劃은 露鋒으로 落筆하여 위로부터 이어받은 筆勢로 下를 向하여 운행하다가 붓을 굴리되 머물지도 누르지도 말고 둥글게 꺾어 右向하여 行筆하여 천천히 鋒을 돌려 머무는 뜻이 거두어 [ㄴ]와 같게 하였다. 그러나 平捺 卽 ‘道’字의 마지막 획은 前記의 圓曲捺과 다르게 褒鋒으로 起筆하여 붓을 굴려 右向하다가 붓을 들어 運行하여 [ㄴ]와 같게 하였다. 挑鉤捺 卽 ‘趣’字의 走邊 終劃은 折鋒하여 右下로 向하되 구부러지게 運行하여 右上으로 向하여 끌어 올리되 速度를 늦추면서 筆을 制御하여 [ㄴ]와 같게 되었다. 이 挑鉤捺은 集字聖敎序뿐만 아니라 蘭亭序와 餘他の 王羲之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共通性으로 王書의 書法上 特徵이다.

(三)興福寺斷碑와의 對比

興福寺斷碑는 聖敎序와 함께 集王書碑의 雙璧으로 알려져 왔다. 明 萬曆年間末에 西安의 城南 城濠中에서 王堯惠에 依

해 發見되었다. 上半은 없고 下半部分만 있어 일반적으로 興福寺斷碑라 稱한. 이밖에도 「唐集右軍殘碑」, 「興福寺集王書碑」, 「唐大雅集王右軍書吳將軍碑」 등 여러 가지로 名稱되고 있다. 大雅가 集字한 이 興福寺碑는 王羲之의 眞跡을 集字했다는 說과 聖敎序를 集字했다는 說이 있어 一定하지 않다. 이 興福寺碑¹¹⁾를 韓國의 普覺國師碑와 對比해 보면 여러 가지 差異點이 發見된다.

書體가 매우 相異한 점도 많고 一部는 매우 相似한 點도 있다. 相異한 것은 前記에서 言及한 集字聖敎序와도 相異하다. 同一字가 相異한 面은 적이고 點法 橫法 豎法 撇法 捺法 挑法 折法 鈎法 등에서 相異한 點이 발견된다. 興福寺斷碑에서도 集字聖敎序의 運筆과 같으면서도 部分的으로는 相異하다. ‘也’字의 終劃이 크게 치켜올라 간 것, ‘京’字의 마지막 三劃을 좁힌 점, ‘之’字의 初劃과 終劃의 變化, ‘一’字의 變化, ‘十’字의 初劃 起筆과 終劃의 收筆部分, ‘下’字의 第二劃과 第三劃의 連結, ‘南’字의 第一, 二劃과 七, 八, 九劃의 破格的인 均衡과 調和, ‘全’字의 三, 四, 五, 六劃의 連結의 特異性 등은 普覺國師碑銘에서는 볼 수 없는 것으로 興福寺斷碑의 特性이 될 수 있다.

11 本稿에서 底本으로 삼은 興福寺斷碑는 聽視覺敎育社刊(1990) 興福寺斷碑와 刊興福寺斷碑이다.

한편 ‘常’字의 연결과 調和, ‘之’字의 波勢 省略, ‘一, 五, 七, 十, 二, 三’字의 橫棒의 點劃法은 共通性을 지닌다. 곧은 것, 아래로 굽은 것, 起筆을 強하게 하고 取筆을 輕하게 한 것, 橫棒이 둘 이상 있는 字에서 上을 仰勢로 下를 俯勢로 나타낸 것도 共通性이 된다. 이 외에도 礫法 掠法의 變化, 省略法 連綿法 등에서 基本은 相似하나 起筆, 行筆, 取筆 등에서 部分的인 差異가 보인다. 이것은 王羲之書의 多樣性의 一部라 하겠다.

全體的으로 聖教序나 普覺國師碑銘에, 筆의 揚抑의 機微가 奧妙하고, 秀絶한 姿態가 있다면 興福寺碑는 朴訥하고 高逸한 姿態를 지니고 있다. 特히 興福寺碑는 普覺國師碑銘에 비해 氣安한 親近感을 주며 鬱매이지 않고 緊張感이 덜한 느낌을 준다.

韓國의 普覺國師碑銘이 二二八八字(陰記除外)인데 興福寺碑는 七三二字로 字數가 적다. 普覺國師碑銘에서 興福寺碑文字와 重複되지 않는 文字는 一〇三八字로서, 普覺國師碑銘의 字數가 越等히 많다. 따라서 普覺國師碑銘은 行書研究의 重要한 資料 된다.

以上 普覺國師碑銘과 聖教序, 興福寺斷碑를 相互 對比하여 相異한 點과 相似한 點을 살펴 보았다. 세 碑 모두가 王羲之書를 集字했기에 共有하지 않는 文字와 變形이 特異한 文字

相互間 相異한 點이 있을 뿐 根本的으로는 相似한 共通性을 지니고 있다. 이 共通性은 他人의 書法과 다른 特性이 되며, 王羲之書의 主된 書法이 되기에 좀 더 具體的으로 檢討해 보기로 한다. 즉 永字八法에 따라 考察자 한다

點인 側法은 ‘永’字의 第一劃을 쓰는 法인데 ‘言 玄 方’字에서 上點으로서 각각 다르게 쓰였다. 玄字은 永字의 側法과 같이 起筆해서 돌아 감아 눌러 찍었으나 言字의 側法은 玄字와 달리 左上 右下되게 筆의 位置를 定하고 露鋒이 되게 해서 다음 획과 調和를 이루었다. 물 수변의 三點은 位置의 조화를 이루되 上 二點은 下向 下 一點은 上向하는 原則을 遵守했고 ‘火’字의 兩點과 ‘善’字의 一, 二劃은 羊頭點으로 두 點이 相互 向하는 調和를 이루었다.

가로획인 勒法은 ‘一’字의 多樣한 變化, ‘丿’字 初劃, ‘上’字 第三劃, ‘下’字 第一劃의 相應 ‘三’字의 小中大의 均衡을 維持하고 있다. 세로획인 努法은 縱棒이라고도 하며, ‘半, 年’字와 같이 날카롭게 붓을 뽑은 경우도 있고 ‘翠, 帝’字와 같이 날카롭게 뽑지 않고 느리게 뽑은 경우도 있다. ‘翠, 帝’는 느리게 뽑는다고 보다는 取筆을 강하게 누른 것이라 보는 것이 옳다. ‘部, 耳’字는 날카롭게 뽑은 것이나 특히 ‘耳’字는 聖敎序, 普覺國師碑銘 모두 처음에는 약하게 눌러 내리긋다가 가운데를 지나서는 더욱 강하게 눌러 羸弱을 돋보이게 내

리그은 획으로 더욱 호쾌한 느낌을 준다. ‘非, 川’字는 努法이 한 글자에 두곳 이상 있어 變化를 보이고 있다.

과임 즉 磔法(波法)도 聖敎序, 普覺國師碑銘, 興福寺斷碑 모두 共通點을 지니고 있다. ‘人 久 父 金 含 天’의 과임은 모두 왼쪽 ‘掠’획에 接筆하여 45度方向으로 비스듬히 내리그어 縱波라고도 한다. ‘人, 久’는 楷書에 가깝게 쓰였으며 波勢도 ‘永’字 八法의 마지막 획과 같게 되었다. ‘文, 金, 含, 天’은 取筆이 豪放하다. ‘永’字 八法과는 다르게, 붓끝을 뾰족하게 빼지 않고, 살짝 눌러 壓力을 가한 뒤 반대방향으로 붓을 떼어 끝이 절단된 모습을 하고 있다. 이 점 王羲之書의 特性이자 뛰어난 字劃의 書法이라 하겠다. ‘之, 遐, 越’字의 橫波는 收筆이 謹嚴하지만 ‘迷, 迥’字의 橫波 收筆은 豪放하며 특히 ‘超’字의 橫波收筆은 위로 둥글게 하여 連綿한 특징을 지녔다.

掠法은 撇이라고도 하는데 바로 撇침으로 글자에 따라 一定하지 않고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肩 歷 省 身 者 有’字에서 撇침은 縱撇이라 하여 미끈 하고 늘씬하게 撇친 공통점을 지니고 있으며 글자의 均衡과 劃力을 維持하여 氣運이 살아 있게 한다. ‘爰, 名, 多, 物, 形, 彩’字의 掠法은 聯撇이라고도 하며 一字內에 掠法이 二劃이 存在한다. ‘爰’은 처음 掠은 길고 두번째 掠은 짧게 하며 ‘名’은 반대로 第一掠은 짧고 第

二掠은 길게 하여 方向을 相異하게 한다. '多, 物, 形, 彩'等字 二劃 以上の 掠劃이 一字內 存在하는데 모두 筆意에 變化를 주어 強弱, 長短, 大小, 方向의 相異 等으로 變化을 追求하였다.

趯法인 갈고리(勾)의 方法도 多樣하다. '東 末'等 中央劃의 끝에 붙은 갈고리는 짧으면서 작게 치켜 올렸고, '求 子 界 字'字의 趯劃은 앞의 것보다는 다르게 길게 쓰였으며 特히 '乎'의 趯劃은 他字에 比해 매우 길고 굽게 下平向한 特徵을 지녔다. '雨, 而, 問, 則'과 같이 右側 끝에 붙은 趯法은 힘차고 짧게 쓰였고 '包 尤 苞'字의 趯法은 反對로 右上向되게 썼는데 이것은 一般的인 書法이다.

다음에는 王羲之 書法中 劃을 完全하게 하지 않고 省略한 것에 대하여 考察하여 보도록 한다. 聖敎序, 普覺國師碑銘, 興福寺斷碑에 共通的으로 存在하는 書法이다. '大, 之, 也, 凡, 先, 乃'字을 보면 磔法(波法)과 趯法(勾)가 省略됨을 알 수 있다. '大, 之'字의 波法 省略은 行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지만, 길게 뻗치지 않고 點이 되게 했다거나 빠치다가 中途에서 停止한 狀態를 이루었다. 나머지 四字는 모두 趯法을 省略한 것인데 마디에서 갈고리를 形成하지 않고 빠침이 되게 했다. 더불어 늘려 轉筆로 치켜 올리는 것이 아니라 빠침획이 되게 했다. '神, 無, 照'字에서 示의 一劃 省略

‘無，照’의 終劃 四點을 三點으로 하여 一點을 省略하는가하면 無의 終四劃을 一字로 쓴 경우와 水邊을 내리그어 치쳐올린 경우를 볼 수 있다. 後者の 경우 草書에서 볼 수 있는 것이지만 行書에서도 흔히 찾을 수 있다. ‘志，慧’字의 心字를 三點으로 쓴 경우는 省略인 同時에 變形인 것이며，‘業，佛，標’字에서는 橫棒 一劃을 省略하였다. ‘啓，如’字에서는 口를 二點으로，‘磔，言，區’字에서는 口를 一點으로 하였고，‘違，常’字에서는 口를 橫棒 一劃으로 하였다. ‘乾，軌’字에서는 日의 一劃을 省略하였으며 ‘轉，朝’字는 日을 橫棒 一字로 하였고 ‘門，諸’字는 日을 二點으로 ‘靈’字는 三個의 口를 橫棒으로 省略하였다.

王羲之行書의 特徵인 連結法도 聖教序와 普覺國師碑銘，興福寺斷碑 等に 잘 나타나 있다. ‘牟，重’字에서는 가로획(橫劃)의 連結이 유난히 돋보이게 쓰였고，‘而，宣，自，有，月’字는 橫劃과 縱劃의 연결이 잘 된 代表的 書法이다. ‘不，父，子，至，高，物’은 連結된 부분이 圓形을 이루었으며，‘是，然，極，息，帝，素’字는 上部와 下部의 連結이 強調되어 變化를 나타내었다. ‘故，波，跡，孤，經，讀，珪，地，流，排，相’等字는 左扁과 右旁을 連結하는 書法을 잘 나타내었는데 左扁은 좁고 작게했고 右旁은 넓고 크게하여 均衡과 中心을 잘 維持하게 하였다.

王羲之 行書에는 特히 變化의 妙味가 있어 그 書法의 또 하나의 特徵인 卮 聖敎序와 普覺國師碑銘에 잘 나타나 있다. 이것은 集字碑가 아닌 王羲之 行書의 祖宗이라 알려진 蘭亭敍(序)와 ‘之’字가 하나도 같지 않다는 것 등에서 周知의 事實로 認定되고 있다. 王羲之 行書 集字碑에서의 多樣한 變化를 具體的인 例를 들어 說明코자 한다. 前記한 바와 같이 集字聖敎序의 ‘字’를 普覺國師碑銘에 옮겨서 集字했기에, 普覺國師碑銘에는 集字聖敎序와 同一한 ‘字’가 많으며 同一한 ‘字’는 字樣까지 同一한 경가 많다. 그러나 同一한 ‘字’라도 可及의 樣態가 다른 ‘字’를 뽑아 모은 集字者 竹虛의 努力을 엿볼 수 있다.

‘大’字의 경우 세째 획 磔法을 右向 轉筆하여 누른 뒤 左向 收筆하여 左向의 筆意가 보이도록 쓴 것이 있는가 하면 역시 세째 획 磔法을 藏鋒으로 長點이 되게 늘려 짝은 것이 있고, 역시 同一한 劃을 길게 쓰되 擘(磔)을 생략한 경우 등 多樣하다.

‘山, 川’字의 경우 劃間의 間隔不均衡이 도리어 調和와 變化를 아울러 나타내주고 있어 興味롭다. 山의 第一劃은 一般的으로 中間에 直立하도록 쓰나 오른쪽으로 약간 치우치게 쓰였고, 川도 三劃의 間隔을 고르게 하는 것이 一般的이나 第二劃이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어 不調和같으나 山의 第二劃

을 짧게 굵게 하여 調和을 맞추었고, 川의 第一, 二劃間의 空間의 效果로 因하여 不調和 속의 調和로 認識되고 있다. ‘生’字 草書의 三, 四劃의 모습과 連結 樣相을 반대가 되게 쓴 경우, ‘而’字의 一, 二, 三, 四, 五, 六劃을 各各 分離해서 쓰거나 두획 또는 세획씩 붙여 쓴 境遇에서 볼 수 있는 變化 等도 集字碑에서의 한 特徵이라 하겠다.

‘住, 俗, 僧, 佯, 像, 僞’等 人偏이 붙은 字를 觀察해 보면 人偏이 同一하게 쓰여진 것이 없다. 卽 右旁의 몸이 되는 글자에 따라 各樣各色이다. 안으로 약간 굽은 경우, 밖으로 약간 굽은 경우, 사이를 많이 띄운 경우 第二劃을 빼쳐 올린 경우와 그냥 눌러 눌러 마무리한 경우 등 變化를 크게 하였다. 이것은 두 人偏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行, 彼’등과 ‘得, 御’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처음 획 빼침을 점으로 다름 人偏을 내리כות는 努法으로 變形한 것은 普覺國師碑銘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경우이다. 이 二人偏은 德과 後에서는 三水偏처럼 쓰여, 草書에서 二人偏과 三水偏을 互用하는 것이 王羲之 行書에서부터 나타남을 알 수 있다. ‘法, 注, 流, 深, 澤’等の 三水偏도 二人偏과 類似한 面을 지녀, 草書에서 相互應用하는 可能性을 考察할 수 있다.

王羲之 行書의 脚部의 쓰임도 後代 行書의 典範으로 많이 쓰였다. ‘典, 其’의 八字는 가운데 空間을 넓게 하여 양쪽 點

이相應하게 하는 경우와 왼편點은 길게 빼치고 오른쪽點은 둥글게 찍어 右轉左向하는 二種을 볼 수 있고, ‘常, 帝’의 巾도 常에서는 내리긋다가 왼편으로 굽게 收筆하여 左向하게 하는 법과 帝에서의 巾은 마지막 垂針으로 곧게 내려 긋다가 끝부분을 針이 되지 않고 둥글게 마무리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王羲之 行書의 多樣한 特性은 後代로 이어지면서 行書의 一般的인 性格으로 認識되어 왔고 行書의 典範으로 자리를 굳히게 되었다. 所謂 王羲之 行書 集字三碑에는 上記의 書法이 基本骨格을 이루고 있으며 特히 集字聖教序, 普覺國師碑銘 두 碑에 王羲之 行書의 代表書法이 잘 나타나 있다고 하겠다.

그렇지만 全體的으로 보면 前記의 共通點을 發見할 수 있지만 字字劃劃 相互間 對比해 보면 조금씩 差異가 난다. 三碑의 同一字 相似性 相異性을 比較 考察키 위해 對比表를 提示한다¹²⁾.

같은 크기의 글자를 縮小시킨 것이나 그 느낌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普覺國師碑銘의 글자는 다른 두 작품에 비해 劃이 굵고 부드럽게 쓰였음을 볼 수 있다. 刻者가 纖細하게 刻하지 못하고 굵고 부드럽게 刻하였음을 알 수 있다. 一字

12 많은 文字를 全部 對比할 수 없기에 簡單하면서도 活用度가 높은 文字만 對比했다. 三碑 모두 縮小한 것이다.

의 경우 興福寺斷碑, 集字聖教序의 書法과 多少問의 差異가 있으며 月字에서는 興福寺斷碑가 他二碑와 多少의 差異가 보인다. 上記 表에는 可及的 類似한 字들을 모았기에 差異點보다는 共通點이 더 많지만 字字劃劃別 相異點은 集字聖教序와 普覺國師碑銘이 더 많다. 이것은 두 碑가 여러곳의 王書를 集字했고 特히 字數가 많기 때문이다¹³).

V 普覺國師碑銘의 書藝術的 價値

普覺國師碑銘은 現存 集王碑 中에서 建立年代는 늦지만 가장 많은 王羲之書 文字로 集字되어 있어 王羲之書 研究는 勿論 集王碑 研究의 重要한 資料가 된다. 한편 優秀한 王羲之書 法帖으로도 認定할 수 있다. 따라서 普覺國師碑銘의 書藝術的 價値는 크다. 完好本이 發見되기 前 原碑破損以後 拓本도 外國人에 依해 《王羲之行書字典》에 一部나마 掲載되었다는 事實로도 그 價値는 認定된 것이다. 普覺國師碑銘에 是 前記한 「聖教序」 「興福寺碑」 외에 「蘭亭序」 「六譯金剛經」 「趙模千字文」 「二儀千字文」 「二謝帖」 「周孝

13 伏見沖敬著 釋智賢譯 《書藝의 歷史》〈中國篇上〉(悅話堂 1977) p59에도 王羲之의 集字碑가 集字聖教序와 興福寺斷碑로부터 뽑거나 法帖으로부터 모은 것이 그 대부분임을 說明하였다.

侯碑」 등과 類似한 文字도 있어 集字者인 竹虛가 王書에 대한 深奧한 知識이 있었고 多樣한 王書帖을 所藏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普覺國師碑銘에 表現된 王書法은 聖敎序와 相似하며 他人의 各種書法에 보이는 行書와는 많은 差異를 發見할 수 있다. 帶右點, 上挑點, 曲鉤豎, 粗尾豎, 彎弓豎, 挑鉤捺, 背拋鉤, 圓曲鉤 등 運筆法과 努法 磔法 等の 多樣한 點劃法은 前記項目에서 볼 수 있었듯이, 王羲之書의 한 特徵으로 보아지는데 이런 特徵이 集字聖敎序와 普覺國師碑銘에 잘 나타나 있다.

普覺國師碑銘은 集字聖敎序나 興福寺斷碑와 마찬가지로 集字者의 書法에 대한 知識과 美的 感覺에 따라 行間과 配置, 字形의 調和 等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普覺國師碑銘 內容의 훌륭함이 撰者인 閔漬의 力量에 따른 所産이라면 書藝術的 價値는 書者인 王羲之와 集字者인 竹虛의 調和美의 結晶體라 하겠다. 一字一劃의 書藝術的 價値는 王羲之의 몫이고 碑面全體에 흐르고 있는 美的 氣風, 字對字, 行對行, 大小強弱, 疏疏密密, 前後左右의 調和美 創出은 竹虛의 몫이다. 그러나 集字碑에서 이러한 分業이 잘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刻手가 잘 새기지 못하면 所期의 目的을 이룰 수가 없다. 따라서 刻手의 役割 또한 重要的 것이다. 集字碑의 結晶體는

書者 集者 刻者 三人의 共同作業에 依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이 三人의 共同作業이 均等化될 수는 없고 가장 重要한 것은 書者가 글씨를 잘 쓰는 것이 關鍵이다.

普覺國師碑銘의 書藝術的 價値를 究明하기 위해 前記에서 밝힌 所謂 三集字碑의 共通的인 書法의 特徵은 除外하고 普覺國師碑銘의 特徵的인 內容만 考察코자 한다.

王羲之 行書中 가장 많은 글자를 普覺國師碑가 內包하고 있다는 것은 前項에서 밝혔다. 그 中 集字聖教序, 興福寺斷碑, 蘭亭序, 臨摹本法帖, 集王碑, 餘他八八個 王羲之 行書를 彙集한 「王羲之行書字典」에도 없고 普覺國師碑銘에만 存在하는 文字는 麟, 幢, 積, 涌, 湫, 麒, 痒, 剔, 恢, 龜, 耄, 戀, 摳, 邀, 陞, 押, 頤, 賚, 冲, 鈕, 賁, 晷, 盥, 撾, 踞, 拈, 拄, 扶, 麼, 俄, 煜, 堵, 臘, 諳, 熾, 穩, 扶, 渦, 惟, 玢, 逾, 駢, 淪, 颯, 忤, 孕, 燼, 圮 等이다. 이러한 글자는 竹虛가 集字할 당시까지는 王書의 여러 典籍에 內包되어 있었는데 現在까지는 傳來되지 않은 것이다. 이점은 普覺國師碑銘의 書藝術的 位置를 重要하게 決定하는 것이다.

普覺國師碑銘 自體만으로도 王羲之 行書의 多樣性 美的 價値를 알 수 있다. 第一九葉를 例로 보기로 한다. 內容은 一 然의 著書를 紹介한 文章인데 ‘之’字 三回, ‘三’字 四回, ‘二’字 二回, ‘卷’字 八回, ‘十’字 二回, ‘有’字 二回, ‘門’字 三回, ‘著’字

二回, '編'字 二回, '師'字 二回 等 重出字이 많으나 一字도 同一한 字가 없이 多樣하다. 二字를 보면 세 획을 짧게 하거나, 첫째 둘째 획의 間格을 다르게 하거나 마지막 획을 누르거나 눌러서 눌러 變化와 多樣함을 보여 준다. 二字도 마찬가지로 획의 굵기를 다르게 하거나, 획의 길이를 짧게 또는 길게 하여 妙美를 느끼게 한다. 卷字의 境遇 初二點은 거의 同一하게 表現되었고 三四五六劃까지도 相似하게 쓰였으나 마지막 巴부분을 각각 相異하게 하여 變化를 주고 있다. 卜字도 橫劃과 縱劃을 相異하게 하여 一面은 부드럽게 一面은 딱딱하게 하였다. 이렇게 簡單한 字까지도 變化無窮한 모습을 보여 주는데 集字者가 얼마나 書法에 대한 知識을 지녔으며, 王羲之 書體를 많이 所有했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字大를 보더라도 縱橫5mm(七字)의 最小字와 縱八mm 橫一五mm(二字)의 中間字, 縱二三mm 橫一八mm(雜字)의 最大字에 이르기까지 多樣하면서도 調和를 이루고 있다.

第一九葉의 一葉만 보아도 如此하기에 이를 基礎로 餘他의 樣相을 두루 짐작할 수 있다. 第一行만 보면 '故略之師之所著有語錄二卷偈'의 내용을 大中小中中小中大大中中中中的 字大로 布置하여 行書 大中小의 均衡과 調和美를 알 수 있다. 一九葉 全體를 보더라도 小弱하기 쉬운 字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大小의 布置를 잘하여 一篇의 完全한 作品으로 昇

華시켰다. 十字의 橫·縱劃을 굵고 크게 하여 最强의 美를 追求했고, 有·所·洞字의 連綿過程을 圓形으로 하여 力動的인 感을 느끼게 하는가 하면 卷·人·丕字의 沈着·安定한 모습에서 靜的인 雅淡함을 느끼게 한다.

이 외에 十九葉에는 其字의 縱長橫短의 字形에 終二點의 강한 左右의 相立 照應의 美, ‘洞’字 第五劃의 圓活寬對한 運筆, ‘諸’字 日劃의 二點의 連綿에서 느끼는 速度感, ‘事’字의 日劃 一로 省略하면서 다음 劃을 連綿시킨 후 마지막 縱劃(勞·趨)을 甚長시킨 縱長橫短에서 느낄 수 있는 豪快美, ‘重’字의 垂針을 最後에 하여 縱橫의 連綿의 美를 살린 筆順變化와 逆鋒을 筆을 날려 方劃이 되게 한 平撇의 날카로운 美, ‘臧’字의 左部 四劃 省略과 裡鋒으로 轉筆하여 右下를 向하여 運筆한 後鋒을 轉하여 左上을 向하여 치켜낸 戈鉤의 流動美를 觀察할 수 있다.

以上과 같이 一葉內 一〇四字中에도 이러한 妙美가 많으니 全體的으로 보면 普覺國師碑銘의 書藝의 價値는 높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普覺國師碑銘의 獨特한 運筆과 筆順, 字形의 獨特한 面에 대해 考察코자 한다.

第三葉의 第一行 ‘諱’는 諱字인데 筆順과 運筆이 獨特하다. 言偏은 보통이나 右旁의 日劃 一로 省略하고 특히 末

막 劃을 下向運筆하다가 左向해서 重厚하게 收筆(趯法)하였다. 破格的인 方法으로 行書의 無窮한 書法을 斟酌케 한다. 第二行 章을 章으로 쓴 例도 稀薄한 것으로 立과 아랫부분을 擘 차게 하여 위로 당기게 하는 느낌을 주었다. 第八葉 賈와 十五葉 八行 第七字 賈는 賈를 쓴 것으로 古隸를 楷書化한 書體의 變化過程을 알 수 있는 것이다. 隸書에서 兩偏人을 亠로 쓴 경우도 있고 點으로 쓴 境遇도 있으나 行書의 境遇는 稀少하다.

여러 곳에 無字가 쓰였는데 第十四葉 三行 第七字는 𠄎로 되어 있다. 獨特한 運筆의 筆順이다. 特히 처음 入筆해서 左向으로 비긴 後 右向해서 勒法과 같이 그은 後 乙字 貌樣을 하고 그 사이로 左向빼침과 右向勒을 길게 한 後 收筆을 上向으로 하였는데 특히 上向收筆 部份이 一般的인 行書 筆意와 相異하게 쓰였다. 「蘭亭序」 「辛相安和帖」 「閒者帖」 「建安帖」 「追尋帖」 「足下家帖」 「追傷帖」 「奄至帖」 「右脾帖」 「吳陰地帖」 「紙筆精帖」 「二謝帖」 「二哥帖」 「集字聖教序」等 法帖에는 無字가 모두 一般的인 行書로 쓴 것이다.

第十葉 第二行 第八字 𠄎字는 等字인데 運筆과 筆順이 獨特하다. 竹部의 出發이 𠄎와 같게 쓰인 것은 草書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데 行書에서도 相互交用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資料이다. 第二十葉 第二行 第八字 ‘序’는 一點 加劃을 하여 異常하게 보이고 第二二葉 ‘命·碑·年’字의 마지막 終劃 垂針(努法)을  (趯法)으로 쓴 境遇도 特異하다. 이것은 第七葉 三行 末字 ‘新’에서도 마찬가지이다. 新字에서는 마지막 終劃을 趯法으로 쓴 境遇를 흔히 본다. 이러한 現象은 楷書의 筆法이 行書로 變轉되면서 多樣하게 變貌 創作되었음을 意味하는 것이다. 第九葉 第六行 第八字는 寡인데  로 되어 있다. 이는 一般的으로 下部 ‘力’代身에 ‘火’ 卽 四橫點을 쓰는 境遇가 있기에 獨特한 것은 아니다. 但只 行書에 많이 쓰이지 않는 境遇에 該當된다. 隸書에서는 下部 力를 大部分 橫四點으로 썼다.

以外에도 日字와 卍字를 區分없이 使用했는데 集字者인 竹虛가 任意로 使用했다고 볼 수 있다. 楷書가 아니기에 行書에서는 交用할 수 있기에 特異하다고 볼 수는 없다.

普覺國師碑銘의 이러한 特徵은 書藝術史에서도 重要視되어야 한다. 集字는 十三C에 했으나 書者 王羲之가 東晉時人이기에 東晉時代 行書 筆法의 多樣性이 後代로 保存·傳承되지 않았기에 獨特하게 認識되는 것이다. 高麗時代 竹虛가 集字할 當時까지도 獨特한 것은 아니었다고 判斷된다. 普覺國師碑銘의 文字들이 高麗로 受容되어 行書字典이 더욱 增補되어야 할 것이다.

現在 韓國 慶北 軍威郡 麟角寺에 保存되고 있는 普覺國師碑銘은 大部分 毀損 破滅되어 極少數의 文字만 判讀이 可能할 뿐 全貌를 살필 수 없고, 韓國精神文化研究所藏 普覺國師碑銘拓本으로 復元 新碑를 세우는 것이 大課題로 남아 있다. 現存 拓本이 完好本이기에 本碑와 誤差없는 復元碑 建立이 可能하기에 早速히 作業이 이루어져야 한다.

VI 結論

韓國에서 集王碑를 세운 것으로는 新羅 叅藏寺碑, 沙林寺 弘覺國師碑, 直指寺 大藏殿碑, 麟角寺 普覺國師碑銘 등이 있었으나 大部分 破壞 毀損되었으며 拓本마저 完好本이 전하지 않는다. 但只 普覺國師碑銘의 拓本 完好本이 傳하고 있어 韓國所在 集王碑의 代表的인 資料가 되고 있다. 集王寺碑의 集字者가 대부분 沙門이고 碑도 佛刹碑인 점을 보면 韓國에서도 中國과 같이 僧侶들이 王書集字碑建立을 主導했음을 알 수 있다. 普覺國師碑銘은 集字聖敎序書體와 同一한 文字가 많으나 集字聖敎序와 興福寺斷碑에 없는 文字도 相當數 있어 現存 王書集字碑로서 가장 重要하다. 특히 王羲之 行書研究

및 法帖(碑帖)으로 重要的 資料가 된다. 普覺國師碑銘에는 至今까지 王羲之 行書의 代表作이라 認定되어 온 集字聖教序, 興福寺斷碑, 蘭亭序보다 더 많은 二二八八字에 따른 各種 技法이 内存해 있어 原碑形態의 全貌를 復元하여야 한다.

한편 普覺國師碑銘에만 存在하는 文字는 複合字 行書研究의 좋은 資料가 되며 普覺國師碑銘에만 存在하고 獨特한 筆法의 形態는 隸書 楷書 行書研究의 貴重한 資料가 되기에 「王羲之行書字典」 增補時 이를 受容하여 行書研究의 範圍를 넓혀야 한다.

上記에서 밝힌 諸現象을 參考해 볼 때 普覺國師碑銘은 書藝術史의 重要的 位置를 차지한다.

이번에 새로 紹介한 鄭震英氏 所藏 普覺國師碑銘도 韓國 精神文化研究院本과 對照하여 最古本與否를 辨別하는 것이 한 課題이다. 이 점은 追後 研究코자 한다.

國。	大。	而。	月。	高。	承。	日。	春。
國。	大。	而。	月。	高。	承。	日。	春。
三。	德。	一。	無。	人。	明。	先。	乎。
三。	德。	一。	無。	人。	明。	先。	乎。
於。	年。	王。	尚。	道。	九。	內。	書。
於。	年。	王。	尚。	道。	九。	內。	書。

<集王書碑 對比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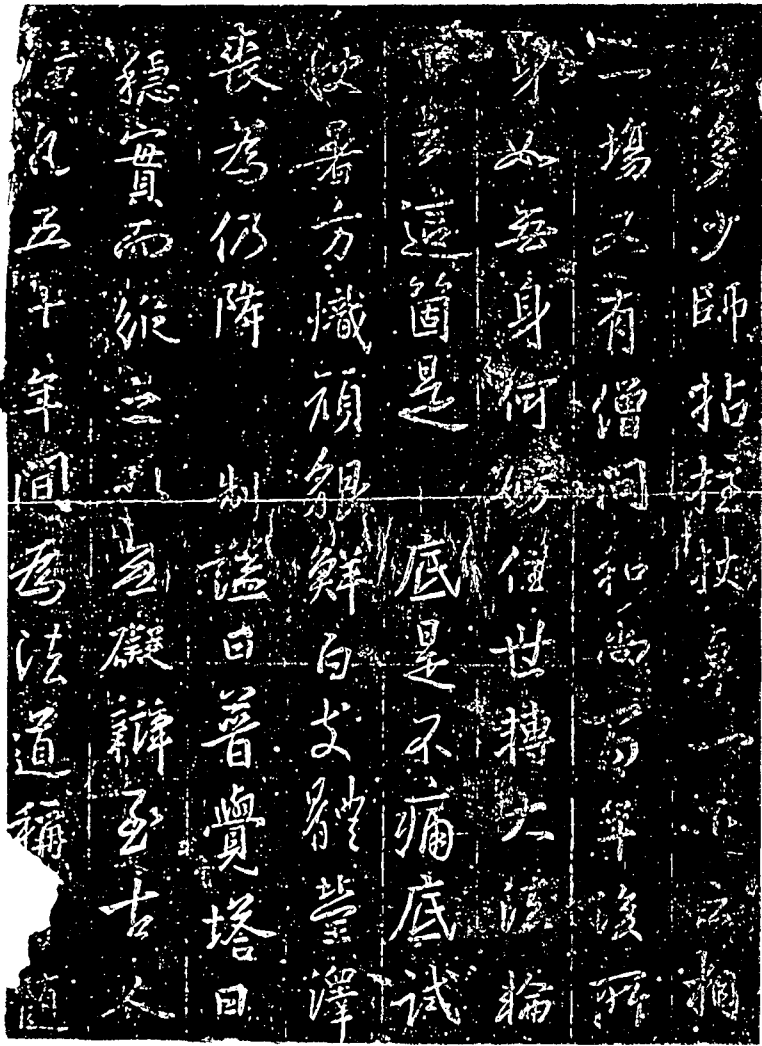
白書:普覺國師碑銘

○ :興福寺斷碑

△ :集字聖教序

甚麼更去來進之也須問是師云
知是般事便休又有僧問和尚在世
如無世視身如無身何妨任世搏大
法輪師云隨愛作佛事問答羅師
之法禪使曰報云痛瘡底不痛瘡
底模糊未辨乃拈拄杖卓一下云這
箇是痛底又卓一下云這箇是不
痛底又卓一下云這箇是痛底是

附錄1: <韓國精神文化研究院本 普覺國師碑銘 第14葉>



부속2: <鄭震英本 普覺國師碑銘 第13葉>